



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시사점

조영현 연구위원

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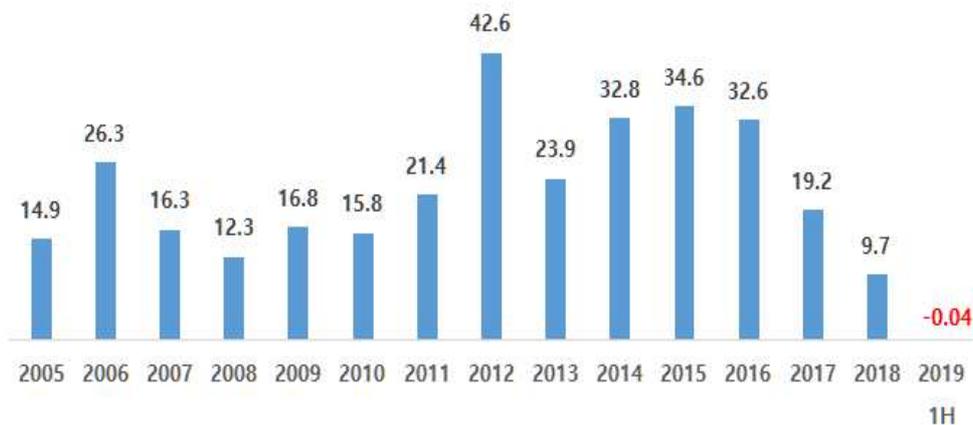
2016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여 2019년 상반기 -427억 원을 기록함.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한 것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. 2019년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11개이며, 이들은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은 특징이 있음. 특히, 이 중 4개 회사는 2019년 상반기에 책임준비금이 감소함.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자산도 감소하므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생명보험회사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

- 2010년부터 증가세이던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(수입보험료 - 지급보험금 - 사업비)이 2016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19년 상반기 -427억 원을 기록함

- 본고에서는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한 원인과 시사점을 논의함

〈그림 1〉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현금흐름

(단위: 조 원)



주: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■ 2016년 이후 보험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한 것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

- 2017년부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역성장하고 있음<그림 2> 참조
- 반면 지급보험금은 2017년, 2018년 각각 10.8%, 8.4%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다소 감소하고 있음

<그림 2> 생명보험 수입보험료



<그림 3> 생명보험 지급보험금



<그림 4> 생명보험 사업비



주: 2019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
 자료: 금융감독원, 금융통계정보시스템

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은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,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임

- 일반계정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, 2018년에 각각 -12.4%, -13.5% 감소하였으며, 2020년 까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
<그림 5>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



<그림 6> 일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



주: 2019년과 2020년은 보험연구원 전망치임
 자료: 보험연구원(2019. 10. 8), “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”

- 회사별로 보면, 23개¹⁾ 생명보험회사 중 2019년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11개이며, 이들의 2019년 6월 말 책임준비금 대비 LAT 잉여금 비율은 모두 10% 미만으로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
 -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생명보험회사의 수는 2016년, 2017년, 2018년, 2019년 상반기 각각 2, 3, 5, 11개임
 -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적정성평가(LAT)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금리하락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²⁾
 - 23개 생명보험회사 중 14개사가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0% 미만임

- 즉,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저축성보험 공급을 전략적으로 줄인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함
 - 현재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신지급여력제도(K-ICS) 시행에 대응하여 저축성보험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임

- 한편, 2019년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11개 회사 중 4개 회사는 2019년 상반기에 책임준비금이 감소함
 -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은 해당기간 보험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, 이는 책임준비금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³⁾
 - 2019년 상반기에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4개 회사 중 1개사는 2016년부터, 다른 1개사는 2018년부터 책임준비금이 연속적으로 감소함

-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자산도 감소하므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생명보험회사는 유동성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함
 - 자산이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유동성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며, 자산 듀레이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
 - 특히,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회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관리를 위해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**kiri**

1) 2018년 합병한 미래에셋생명과 PCA생명은 분석에서 제외함

2) 책임준비금 대비 LAT 잉여금 비율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길 바람; 노건엽·채원영(2019. 10. 14), 「부채적정성평가(LAT) 부담 증가와 과제」, 『KIRI 리포트』, 보험연구원

3) 현행 회계제도하에서 보험영업현금흐름과 책임준비금 변화 간의 관계는 다음을 참조하길 바람; 보험연구원(2019. 11), 『보험동향』, 가을호, pp. 23~24